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6.(화) 12:00

(지면) 2026. 6. 17.(수) 조간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다

- 울산 우정초등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실시(6.17.)
- 행안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를 활용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지진행동요령 학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17일(수),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청,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울산 우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가 지진 발생 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몸을 보호하는 방법 ▲안전한 대피 요령 ▲학교와 가정에서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특히, 어린이가 지진행동요령을 친근하게 익힐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가 출연하는 교육 영상을 활용한다. 현장에는 ‘다행이’가 직접 찾아와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지진행동요령을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 지진행동요령 교육 영상 >



‘다행이’를 활용한 지진 행동요령 교육 영상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ndmiKorea)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병철 (052-928-8500)
		담당자	연구관	진소윤 (052-928-8530)

